

# 손학규 체제... 지역 정치권 지형변화 오나

## 강기정 등 주류 퇴보... 김동철·이낙연 등 신주류 등장

### 차기 총선 겨냥 '보이지 않는 경쟁' 예고

민주당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 서면서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정치인들의 역학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세균 전 대표 측의 세력 위축이 불가피한 반면 손학규계 인사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신연대 출신 인사 4명(정동영·전정배·박주선·조배숙)이 최고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변화된 역학 구도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때까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권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시된다.

일단 손 대표의 경선을 지원했던 광주·전남 정치인들은 신주류로 등장하며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

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선 광주에서 김동철·김재균·조영택·이용섭 등이 손 대표를 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전남에서 박지원·이낙연·이윤석 의원 등이 손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재균·이낙연 의원은 이미 시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됐다. 또한 정동영 의원을 원도 그동안 정세균 체제 하에서 겪었던 소외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정세균 전 대표의 최측근인 강기정 의원. 그는 최근까지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며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실패한 데 이어 주권인 정 전 대

표까지 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함에 따라 비주류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물론 새 지도부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의 변화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은 사그라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손 전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2 지방선거 때 공천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탈당했던 노관규 순천시장과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전완준 화순군수 등 무소속 자치단체장의 복당도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손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종득 목포시장과 임성훈 나주시장은 당안팎에서 확장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를 위해 경선전의 전면에서 싸운 지방의원급 인사들도 지역 정치

권에서 힘을 받게 됐다. 광주·전남지역 경선을 총지휘한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조호관·이은방·김보현 광주시의원, 황정호·송대수·유근기·정빈근 전남도의원, 김성숙·김월출 전 광주시의원, 이창재 북구의원, 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장, 강신만 전 서구의원, 김영규·최대식 여수시의원, 이정남 광양시의원, 김기호 구례군의원, 이종윤 영광군의원 의장, 양규모 함평군의원 의장, 김삼복 장성군의원 의장 등이 경선 승리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4일 "과거에는 광주·전남 정치권에 손학규계가 드물었지만 이번 경선을 계기로 상당수의 손학규계가 탄생했다"며 "이 같은 역학구도의 변화 속에 19대 총선 임박시점에서 '손학규계'를 향해 구애의 손길을 보낼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생생 자치 광주시 간부회의

## “내년도 예산심의 우선순위 정하고 1억원이라도 더 따내려 노력하라”

4일 열린 광주시 간부회의에서는 광주송정역 및 광주역 주변 역세권 개발, 광주 시내 자전거 도로, 사회복지예산 국가 지원 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기획조정실은 창조도시 추진전략 세미나 및 교부세 제도개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의 개최 사실 등을,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은 문화기업체 500개 유치 및 일자리 5000개 창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업체와 지역 대학생과 만남의 자리 마련 등을 각각 보고했다. 또 경제산업정책실은 기아자동차 및 삼성가전은 물론 삼성금융센터가 4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디자인국이 오는 11월까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하자 강운태 광주시장은 역세권 개발만이 아니라 역의 유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서울과 광주가 1시간대로 좁혀진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실을 따지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계획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비엔날레가 반환점을 돌았다 는 보고에 강 시장은 국경감사를 위해 광주를 찾는 국

회원들이 비엔날레를 꼭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1일 자신이 직접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봤다며 “무조건 움직여야 발주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면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겸용 자전거도로에 나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직접 보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국회가 예산심에 들어간 만큼 예산 챙기기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단 1억원이라도 더 따내도록 노력하고 올해 예산의 절반만 내년에 수립된다면 어떻게 할 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32%로 광역시 중 가장 높고, 북구의 비중이 62.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며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지역의 논의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성한 7일 인사청문회

김성한 외교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개최된다.

국회 외교교통상통일위는 4일 외교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다음달 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감안, 주무관관외교장관의 임명이 시급하다며 청문회 조기 개최를 요구했고, 당초 불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총회

광주시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총회가 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협의회장인 조비오 신부, 광주일보 유체철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안에 6억원 어치의 광주산(産) 쌀을 북에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총회가 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협의회장인 조비오 신부, 광주일보 유체철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안에 6억원 어치의 광주산(産) 쌀을 북에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노벨 생리의학상’ 체외수정 개발 엇 에드워즈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체외수정 기술을 개발, 시험관 아기 탄생을 가능케 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생리학자 로버트 에드워즈(85) 박사가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

는 4일 올해 생리의학상은 체외수정(IVF) 기술을 개발, 전 세계 모든 부부의 10% 이상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연 에드워즈 박사에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에드워즈 박사에게는 1000만 스웨

덴 크로네(약 16억7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10·27 재선 현장

#### 김종식, 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실망스런 인물을 민주당 후보로 공천했다”며 “민주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심판하기 위해 오는 27일 치러지는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불친절하고 무능·나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를 실시하고 청장 직속으로 민원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청장이 직접 챙기겠다”며 “또한 노인 어르신과 서민생활안정,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 “특정 후보 지지는 사실무근” 발끈

김종식 전 서구청장이 4일 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우진·조용진 예비후보와 전 주언 전 서구청장 등이 모두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밝힌 데 대해 해당 후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조용진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종식 전 청장이 무소속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조용진 후보가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발언은 전

혀 사실무근의 정치적 술수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이 아닌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우진 예비후보 측도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 어떻게 무소속 후보 지지의사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며 “이는 사실무근으로, 해당 후보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 해직시킨 구청장 vs 해직 공무원 재대결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김종식 전 서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주당 동당 강기수 <사진> 후보와의 ‘약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04년 김종식 당시 서구청장이 서구청 재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강기수 후보를 해직시킨 것. 강 후보는 당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 노조를 결성, 광주본부장으로 활동하다 해직·구속됐다. 당시 서구청장으로 인사관직이었던 김 후보는 광주시에 강 후보의 해임을 요청하고 해임 처분을 내린 당사자였다.

따라서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강 후보가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가 될 경우 해직시킨 구청장과 해직당한 공무원의 대결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강 후보가 단일후보로 본선에 진출한다면 김 후보와는 2006년 서구청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땀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아게·목결림, 수직지림·수축병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쿠티엔 연질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